전국 1만5천 사찰 코로나 극복·치유 기원

4월 30일 입재식… 한달 간 기도 정진

원행 스님 입재법어 설해
"코로나, 무명 깨우쳐 줘"
대중들 '약사여래경' 독송
발열체크 등 방역에 최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무 동방만월세계 십이상원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서울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약사여래불' 칭명 염불이 울려 퍼졌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다. 대웅전 밖 좌석들은 1m 거리를 두고 배치됐으며, 미리 신청한 신도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법당 안팎을 출입하는 사부대중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됐으며, 발열체크도 이뤄졌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고, 내외빈은 초청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입재 법어를 통해 코로나19가 인류의 무명(無明)과 탐진치(貪嗔癡) 삼독(三毒)을 깨우쳐 준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코로나19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한국불교 전래 이래 1700년 동안 지켜오던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까지 한달 뒤로 미뤄야 할 만큼 시간까지 정지시켰다"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알게 했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꽃놀이를 가겠다는 '탐심(貪心)'과 자가격리로 나타나는 '진심(嗔心, 분노)', 의학적 영역과 종교적 신념을 구별하지 않으려 한 '치심(癡心, 어리석음)'을 코로나19가 알게 해줬음을 상기시키며 "이후에도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를 줄이는 절제된 삶과 소욕지족의 삶으로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금 정국보다 더 큰 불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4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약사여래불'을 정근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법회 동참 대중들.

이어 스님은 "1만 명의 생각이 모이면 하늘도 바꿀 수 있다(萬人天作)"고 강조하며 "1천만 명이 연등을 한 개씩 더한다면 그 공덕으로 인해 코로나라는 괴로움의 세상을 룸비니 꽃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원력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마음으로 하늘 위 하늘 아래까지 연등으로 장엄하자"고 당부했다.

입재 법어 이후 참석 대중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뜻을 기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원만히 극복하길 서원하며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수지 독송했다.

또한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모든 공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한달 동안 전국 사찰과 불자들은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배경〉 등을 수지 독송하며 기도 정진을 이어간다. 회향일인 5월 30일(음력 윤 4월8일)에는 기도 회향법회와 봉축법요식이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봉축 행사 대폭 축소…비대면 법회는 증가

올해 봉축,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유례없던 '봉축'이다. 봉축법요식은 한달 뒤인 5월30일(음력 윤4월8일)로 연기됐고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가 입재했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도 대폭 축소됐다. 사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며 법당 출입시에는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변화다. 전반적으로 올해 봉축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봉축주간이 한달 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안을 찾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법회를 시도하는 사찰도 증가해 눈길을 끈다.

◇유례없는 한달 봉축… 법요식도 두 번

올해 봉축법요식은 한달 뒤인 5월 30일 봉행될 예정이지만, 일선사찰에서는 4월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입재에 겸해 이미 간소하게라도 법요식을 봉행한 곳이 상당수다. 공식적인 법요식 일정은 연기됐더라도 '부처님오신날'을 그냥 넘길 순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불자들 역시 봉축법요식이 5월 30일 봉행됨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4월 30일 미리 사찰을 찾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두 번의 법요식과 한달간 이어질 봉축주간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됐던 일선 사찰에 활기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봉축주간 주말을 활용해 사찰을 참배하고 봉축분위기를 접하려는 발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 예방에 크게 기여했지만, 사찰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만큼 이번 봉축주간 동안 일선사찰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봉축행사 대폭 축소

봉축행사의 백미는 단연 연등회(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2호)다. 봉축위원회가 총괄하는 서울 연등회는 이틀간 40만 명이 운집하는 성대한 축제다. 특히 제등행렬은 밤하늘을 가르는 10만 연등의 물결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상징이며, 전통문화마당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한데 모여 다양한 불교문화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그러나 올해 연등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매년 8차선 도로에서 진행했던 제등행렬은 절반으로 축소됐고 행렬을 가까이 만날 수 있던 거리좌석도 운영하지 않는다. 전통문화마당은 아예 취소됐다. 따라서 올 연등회는 이틀이 아닌 5월23일 하루만 진행될 예정이다.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봉행되는 연등법회에 앞서 연희단이 신나는 찬불가와 율동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어울림마당도 생략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교계 결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특정 대다수가 운집하는 대규모행사에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봉축위원회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수가 점등식부터 봉축행사까지 모두 최소인원으로 축소하거나 취소, 소규모 봉축행사로 진행된다.

조계종측은 "봉축과 관련한 모든 행사는 감염예방을 위한 일정간격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방수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와 함께 종단 '청정사찰 지침'에 따라 사찰 차원의 방역도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법회 눈길

코로나19 사태로 2개월여 간 사찰의 법회 및 행사가 일체 중단되면서 비대면 포교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찰이 크게 늘었다. 예불과 법문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4월 30일 봉행된 코로나19 극복기도 입재법회 역시 적지 않은 사찰들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공개하거나 영상을 편집해 게재하는 등 신도들이 꼭 사찰에 오지 않아도 법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찰 중 서울 봉은사와 합천 해인사, 한마음선원, 부산 흥법사, 범어사포교원 효심사, 대전 광제사 등은 이날 입재법회 현장을 아예 실시간으로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만난 색다른 봉축 모습인 셈이다.

자동차 법회를 준비하는 사찰도 있다. 서산 보원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종교단체를 위한 특별주파수를 신청했다. 불자들이 사찰 주차장과 공터 등에 자동차를 주차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법회는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 봉축 주요일정

불교계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봉축일정 축소 및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난극복을 주제로 한 행사가 작게 나마 준비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연등공방과 어린이놀이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며, 부산지역에서는 릴레이 호국기도가 펼쳐진다. 코로나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대구지역에서 모든 일정 취소를 결정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코로나극복 300배 등이 눈길을 끈다. 〈편집자 주〉

연등회

5월 23일	어울림마당	동국대 운동장
5월 23일	연등행렬	종로 일대
5월 30일	봉축법요식	전국사찰
5월 30일까지	전통등전시회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서울 · 경기

5월 10일	가족연등공방	조계사
5월 14일	등만들기 마당	조계사
5월 16일	천수다라니대정진	봉은사
5월 17일	어린이불자모험마당	조계사
5월 23~25일	봉축자비나눔바자회	조계사
5월 24일	봉축관불의식	봉은사
5월 27일	봉축야경템플스테이	조계사
5월 30일	봉축점등식	봉은사

부산 · 경남

5월 30일까지	삼광사연등문화제	삼광사
5월 16일	봉축점등식	삼광사
5월 27일까지	호국릴레이법회	부산사찰
5월 27일	호국기원기도	송상현광장 특설무대
5월 29일	범종교평화기도	부산사찰

대구 · 경북

5월 9일	안동 봉축점등식	웅부공원
5월 23일	안동연합법요식	웅부공원
5월 23일	의성 코로나극복 300배정진	의성사찰

광주 ·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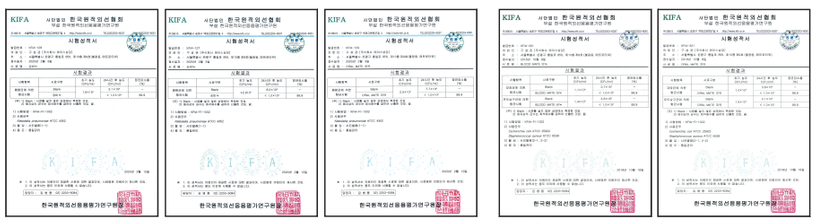
5월 6~27일	전통등전시회	광주천일대
5월 23일	관등법회	5 · 18민주광장

전주 · 전북

5월 23일	전북연등축제	전북도청광장
5월 16일	정읍군부대봉축법회	이순신연대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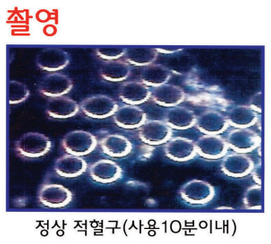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과 다리에 쥐나는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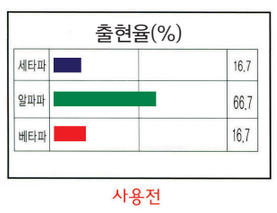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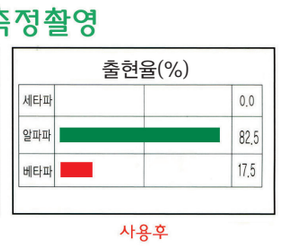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